신나는 썰매타기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9일 휴일을 맞아 광주 무등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눈 쌓인 산길에서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년 수십억 가로등 전기요금·유지비용

광주시, 왜 자치구에 떠넘기나

'폭 20m이상 도로' 올 5개 구청 24억 대납…재정난 호소

광주시가 매년 20억원이 넘는 가로등 유지비용을 자치구로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광주시 조례는 폭 20m 이상 도로는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는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로폭 20m 이상 326개 노선 510km 도로를 직접 관리해야하며, 해당 구간의 가로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매년 해당 구간 가로등의 전기요금과 수선유지비 등 24억원 안팎의 유지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 가로등의 유지비용을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면적의 44.5%를 차지하는 광산구의 재정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산구 관내에서 광주시가 관리해야할 폭 20m 이상 도로는 195km로, 해당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수만 9692개에 이른다.

광산구는 올해에만 광주시에서 관리해야할 가로등 유지비용으로 전기요금 8억원과 수선유지비 1억원 등 구 자체 예산 9억원을 투입했다. 결국 참다못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광주시를 방문해 해당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 회에서 매년 가로등 관리 비용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10억원 안팎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부담하다보니 재정압박이 누적돼 정작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5개 자치구 담당 국장들과 만나 시 재정이 어려워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자치구에서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눈길 사고 속출…광양 가드레일 충돌 2명 숨져

수요일까지 강추위 예고

지난 8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8㎝의 눈이 내리고 9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5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주말과 휴일 곳곳에서 눈길과 한파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오후 6시15분께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의 한 도로에서 김모(47)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김씨가 숨졌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3시10분께 광양시 중군동 옥곡분기점 부근 국도에서는 광양읍 쪽으로 달리던 매그너스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홍모(여·47)씨 등 여성 2명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안모(40)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전 8시10분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세풍초등학교 앞 고가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주말·휴일 강추위와 눈은 12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3일쯤 영상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3㎝ 안팎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후문~오치사거리 교통시설 개선 사업 실시

광주시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인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오치사거리 1.6㎞구간의 교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에만 7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 최다 발생 구간'이다.

특히 중앙선 침범 및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꼽힌다.

광주시 김영수 교통안전 담당은 "해당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곳으로, 이번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사고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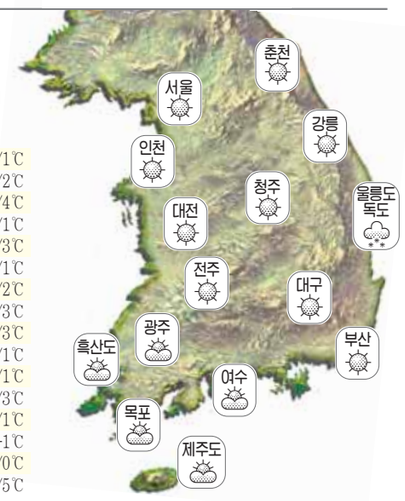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03시 36분 달짐 14시 38분

아침기온 뚝

가끔 구름 많고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광 주	구름많음	-6/1℃
목 포	구름많음	-3/2℃
여 수	구름많음	-2/4℃
나 주	구름많음	-7/1℃
완 도	구름많음	-2/3℃
구 례	구름많음	-6/1℃
강 진	구름많음	-4/2℃
해 남	구름많음	-3/3℃
장 흥	구름많음	-3/3℃
순 천	구름많음	-6/1℃
영 광	구름많음	-6/1℃
진 도	구름많음	-2/3℃
전 주	맑음	-8/1℃
군 산	구름많음	-8/-1℃
남 원	맑음	-11/0℃
흑산도	구름많음	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11:21 23:27	04:11 16:59
여수	00:35 18:36	12:37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 씨						
최저/최고	-4/3	-4/4	-2/7	3/9	5/9	3/8

전교조 새 위원장에 김정훈씨

광주지부장 김용태·전남지부장 이기남 선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에 김용태(전자공고), 전남지부장에 이기남(화순중) 교사가 각각 당선됐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광주지부장 당선인은 수석부지부장으로 뽑힌 안규심(광주공고) 교사와 함께 지부를 이끈다.

이기남 전남지부장 당선인도 수석부지부장으로 선출된 정영미(순천제일고) 교사와 함께 지도부를 맡는다. 이들의 임기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제16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김정훈(남원중) 교사가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이영주(서울 신현초) 교사가 선출됐다.

김 당선자는 전교조 전주지회장을 거쳐 현재 전북지부장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